

연합감리교회

한인여교역자협의회 38년 역사

한세희

연합감리교회 한인여교역자회 협의회의 형성과 발전

(1985-1990년)

지난 1985~1990년은 연합감리교회 한인여교역자회 모임의 기반을 세운 기간으로 여교역자협의회의 초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한인여교역자협의회 회칙이 정해지고,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단이 조직되었다. 또한 여교역자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선교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채택하였으며, 정기적인 회보 발행으로 한인여교역자간의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하였다.

1. 신앙 공동체의 형성

연합감리교회 한인여교역자회 제1회 모임을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주관으로 1985년 9월 23~25일 나성에 있는 Western Inn에서 가졌다. 당시 고등교육사역부의 조영준 목사는 그의 초청 공문에서 한인여교역자협의회 발족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임을 통하여 한인여교역자회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하고, 둘째, 한인여교역자회들의 당면 과제를 다루며, 셋째,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여교역자 명단 작성과 지지를 이 모임의 목적으로 한다.

제1회 전국 여교역자 대회的主題는 “새 시대의 새 여선지자”였으며 태평양연회 소속의 백인 여성 목사인 퍼트리샤(Patricia Farris)가 개회 예배의 설교자로 초청되어 “나에게 꿈을 노래해다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퍼트리샤 목사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삶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불러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윤남옥 전도사는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성서적 근거”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오혜식 목사는 성경 공부를, 그리고 당시 고등교육국의 여성교역자 사역을 담당하던 니컬슨(Kathy Nickerson)목사와 김혜선 목사는 공동으로 “미 연합감리교 내의 여성 교역자”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둘째 날에 있었던 저녁 축하 만찬은 로벗슨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으며, “여성: 목회의 부름”이란 비디오를 전국 동양계 미국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의 총무였던 Naomi Southard 목사의 강연과 함께 시청하였다. 대회의 마지막 날은 전국 여교역자 모임의 공식적 명칭을 “National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Church Korean-American Clergywomen"으로 부르기로 정하고, 오혜식 목사를 초대 회장으로, Colleen Chun 목사를 부회장으로, 김혜선 목사를 총무로, 김영 목사를 회계로, 윤남옥 전도사를 서기로, 그리고 한영숙 목사는 영성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 모임에서 회원 명단을 재정비하였고, 다음 모임을 준비하였으며, 여교역자간의 관계를 돈독게 하기에 힘을 기울였다. 이 모임은 30여 명의 목사, 전도사, 그리고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 여교역자 협의회를 발족시킨 뜻깊은 모임이었다. 이때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여교역자 수는 6명(전코린, 오혜식, 최옥자, 한영숙, 김혜선, 김영)이었고, 1979년 최초로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받은 한인여교역자회인 전코린 목사만이 정회원 목사였다. 이 모임에 많은 남성 목사와 평신도 대표들의 격려와 방문이 있었는데, 총회제자훈련부의 전상의 목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김찬희 박사, 당시 남가주 태평양 연회의 롱비치 지방의 감리사였던 고 박진성 감리사, 그리고 로벗슨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박대희 목사가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2. 회칙 제정 및 세계 연합 감리교회 여교역자회 참여

1986년 9월 17일부터 19일에 제2회 전국 한인여교역자회 대회가 나성에 있는 웨스턴인에서 거행되었다. 이 모임의 주제는 "한인여교역자회의 사명"이었고, "한인여교역자회의 사명과 어려운 점을 행정적인 차원, 성서적 해석에 따른 여성 목사의 위치, 상담학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 교육적인 면"에서 토론 발표하였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고등교육사역부의 조영준 목사는 "씩는 밀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

생활 때 한인교회가 살 것이며, 밀알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1986년 9월 12일자 나성 『한국일보』와 『미주동아』 9월 13일 자에 여교역자 모임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일보』는 "한인여교역자 대회에 참가하는 오혜식 목사, 윤남옥 목사, 김 영 목사 등 9명의 한인 여 목사들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목회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마지막 날에 있었던 임원 선거를 통하여 오혜식 목사가 제2대 회장으로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조하경 목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전국 한인여교역자회 회칙을 채택하여 명실공히 한인 연합감리교회 전국 한인여교역자회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에 안수받은 한인여교역자의 수는 10명이었으며 신학생의 수는 21명이었다.

1987년 8월 17~21일에 뉴저지에 있는 George Resort Retreat Center에서 제3회 전국 한인여교역자모임이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계 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대회가 거행되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혜식 회장이 당시 고등교육사역부의 간사로 있던 니컬슨에게 장학금 보조를 의뢰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같은 해에 세계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인여교역자회 모임을 보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오혜식 회장은 회원들에게 각 연회별로 장학금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였고, 제2회 여교역자 총회시 회보를 한어와 영어로 발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원고와 회비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3차 여교역자 총회에서 조하경 목사가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유원화 목사, 총무에는 김옥환 목사, 회계에는 함정례 목사, 그리고 서기에는 여금현 전도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회칙 개정이 있었는데,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라고 개정하였고, 새로 발족된 회장단에게 한인여교역자회의 선교 선언문을 초고하도록 위촉하였다. 1987년 여교역자회에 경사가 있었는데, 이는 남가주 태평양 연회에서 유원화 목사가 아들인 유찰스 목사와 나란히 안수받은 일이다. 특히 유원화 목사는 57세에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시작하여 오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여교역자들의 귀감이 되었다.

3. 회보 발행과 교육, 선교 선언문 작성

제4회 전국 여교역자 모임은 1988년 8월 20~23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ldersgate Retreat Center에서 열렸는데, 11명의 목사와 8명의 1세 목회 안수 준비자, 3명의 전도사, 1명의 사모, 그리고 윤길상 목사와 니컬슨이 고등교육사역부 간사로, 써더드는 전국 동양계 미국인 연합감리교 협의회 대표로, 그리고 Claremont 신학대학원의 김신행 목사가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많은 교육 강연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 교역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하경 목사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는 니컬슨이 또한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써더드, 아시안 여성 신학에 대해서는 여금현 목사, 김애라 목사, 박혜영 목사, 1.5세 여성 목사 안수 후보자들의 소명 의식에 대해서는 오미교 전도사, 예정숙 전도사, 백미영 전도사가 강연하였다. 폐회 성찬 예배 중 드러진 헌금 127불을 차세대 여성교역자들을 위해 쓰기로 하였다. 다음 해에 있을 제5회 전국여교역자 모임에 모국 교회 여교역자를 두 분 내지 세 분을 초청하여 한미 여교역자간의 지도력을 교류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여교역자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교 선언문을 작성하여 여교역자

회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다. 1989년 부활절에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해 오던 전국한인연합감리교여교역자회 제1호 회보가 발행되었다. 회보의 편집위원은 남가주 태평양연회 소속의 유원화 목사, 윤남옥 목사였는데 그들은 편집 후기에서 1년에 4번 회보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창간 회보 일면에 아시안 미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모임에 초대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미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안수사역국의 주관하에 아시안 미 연합감리교회 전국 여교역자 회의가 1989년 5월 15~19일 사이에 하와이 로아 대학에서 열리게 된다. 이 회의의 전체 주제는 '사랑과 정의'이며 한인여교역자회들이 주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별히 조화순 목사님이 초빙 강사로 오시게 되어 여교역자들의 기대가 크다"라고 보도하였다. 조화순 목사는 한국에서 노동자를 위한 의식화 운동을 시작했고, 모국 한인감리교 여교역자모임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모국 여교역자의 대모와 같은 분이다. 여름에 발행된 제2호 회보에는 한세희 목사의 대회를 보고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이 모임은 당시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아시안 여성목회자 40명 가운데 30명이 모임에 참여했던 최초의 연합감리교회 아시안 여성 목회자들의 모임이었고, 그중 13명이 한인 여 목회자였으며 특히 조하경 목사, 오혜식 목사, 김혜선 목사, 그리고 한세희 목사는 각종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모임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산업 선교하는 이미일 목사가 참여하여 한인 산업 선교의 현황과 교계의 흐름을 발표하였고 강사로 초대되었던 조하순 목사는 한국 정부의 출국 정지로 이 모임에 참여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교역자 회보의 커다란 비중을 회원 동정에 두어 각 지역 여교역자들의 동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1987~1988년 사이에 여교역자의 안수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목사 안수 받은 한인여

교역자의 수는 18명이었다.

4. 소명의 재확인

제5회 한인여교역자회 대회가 1989년 8월 10~13일까지 뉴저지에서 "Claiming and Reclaiming Our Identity"라는 주제로 있었다. 총회의 임원 개선에서 회장으로 유원화 목사, 부회장으로 김혜선 목사가 선임되었고, 총무로는 윤남옥 목사, 서기에 강영숙 전도사 그리고 회계에는 한영숙 목사가 선임되었다. 이때 여교역자들의 지역 모임이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있었는데, 1989년 함정례 목사의 사택에서 Drew 신학생과 여 목사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1989년 나성에서 부부 목사로 개척 교회를 하던 오혜식 목사가 개체교회를 떠나 연합가리교회 출판사의 한어 출판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회를 떠나 기관교회를 시작한 최초의 한인 여교역자가 되었다. 제6회 한인여교역자회 모임이 1990년 8월 9-12일에 한세희 목사가 시무하던 나성 로스펠리즈 교회에서 열렸으며, 여기에서 네 차례의 주제 발표를 통해 여교역자의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창조적인 목회에 대한 토의와 연구를 하였다. 여교역자의 목회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토론과 목회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며 여교역자의 소명을 재확인하였다. 여교역자회의 연차 모임은 여교역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공동의 관심사를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여교역자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때 새임원이 선출되었는데 회장에는 김혜선 목사, 부회장에는 여금현 목사가 선임되었고, 총무에 신경림 목사, 회계에 한세희 목사, 그리고 서기에 황인숙 목사가 임명되었다. 이때 총회에서 1991년 여교역자 총회를 8월 5~9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국 미 연합

감리교회 여교역자 총회 기간 열기로 하였다. 한국에 있는 여교역자들도 초청하기로 계획하고 총회 결정에 따라 모국 여교역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에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23명의 모국 여교역자들이 여교역자 총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모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나성, 뉴욕, 시카고)기금모금 책임자가 선정되었는데, 나성 지역은 한세희 목사와 윤남옥 목사, 뉴욕 지역은 여금현 목사와 함정례 목사, 그리고 시카고 지역은 신경림 목사와 김혜란 목사가 그 책임을 맡았다. 모든 여교역자들이 합심하여 성금 모금 및 설교, 관광 등을 준비하여 23명의 모국 한인여교역자들을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미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총회에 초대하였으며, 이때 모금된 액수는 \$17,625.00이었다. 이 모임은 한미 교역자들이 서로 목회 경험을 나누고 지도력을 교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990년 가을 호부터 회보 편집을 한세희 목사가 맡게 되었는데 회보 첫 면에는 1991년 8월 5~9일에 시카고에서 열릴 세계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총회를 알리는 기사를 싣고, 회보의 여교역자 주소록은 안수받은 목사님 22명을 그리고 18명의 전도사님의 주소를 싣고 있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제7차 한인여교역자회 총회도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인여교역자회 협의회 대외적 참여를 통한 성숙기

(1991-1994년)

다음 1991~1994년 동안의 시기는 한인 여교역자가 왕성하게 대외적 모임에 참석하여

견문을 넓히고 또한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한인여교역자협의회 존재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기울인 기간이었다. 또한 세계감리교회 여교역자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배움의 시간을 삼았고, 한국을 방문하여 모국 여교역자회와 공동대회를 열어 지도력을 교류했고, 아시안 여교역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였다.

1. 지도력 교류

1991년 8월 5~9일까지 제5차 전국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미연합감리교회 여성 목사 안수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또한 이 기간에 제7차 한인여교역자총회가 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 총회원 34명 가운데 29명이 참여하였으며, 모국 여교역자 23명이 함께 참여하여 배움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인여교역자회 모임의 개최 예배가 있었는데 설교는 여금현 목사가 하였고, 모국 여교역자 대표로 조화순 목사의 인사말과 최혜자 총무의 모국 여교역자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한세희 목사의 사회로 모국 여교역자와 미 한인여교역자회간의 공동목표와 지향점에 관하여 서로 간의 유대감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총회에서는 현재 미 한인교회 전국연합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던 선교연회에 대해 여교역자 간에 의견교환이 처음으로 있었다. 하지만 선교연회의 의제의 방향이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교역자들은 앞으로의 귀추를 보아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때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한영숙 목사, 조하경 목사, 오혜식 목사를 특별위원회(Task Force) 위원으로 선출하여 일임하였다. 제7차 총회 결정에 따라 제8차 여교역자총회가 설악산에서 열린다는 보도가 1992년 여교역자 회보 봄호 제 일면에

보도되었다. 또한 회보는 세계감리교 여교역자대회에 참가했던 모국 여교역자 교육위원장인 윤영렬 목사의 총회 참여 보고가 있었으며, 행사의 초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창조의 신비한 실체와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고 현재의 이야기로 드러내며 미래의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변화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도와주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여성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 조화순 목사는 대회 총평을 맡아 “여성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제1세계가 제3세계에 대한 횡포와 억압이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하여 많은 여교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 대회를 마친 후 니컬슨은 고등교육사역부를 떠났고 Lynn Scott 목사가 그 대신 여교역자 담당으로 임명되었다.

2. 목회의 다양화

스캇 목사는 제8차 여교역자대회에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여교역자 담당자 자격으로 윤길상 목사와 함께 여교역자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제8차 한인미감리교회 여교역자 총회는 1992년 8월 17~20일 한국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당시 모국의 여교역자 회장은 김민자 목사였다. 이 모임의 주제는 “희년을 향한 여성 목회”로 성서 연구 및 주제 강연으로 이어졌다. 또한 모국 여교역자와 재미 한인여교역자회간의 목

회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 및 의견교환이 있었다. 노스 캘로라이나 연회의 Folly Beach는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백미영 목사의 미국 목회 사례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대회 책자에 소개되었다. 대회 후 재미 여교역자들은 성남시에 위치한 하나감리교회(김점숙 목사 시무)를 방문했는데 당시 김 목사는 빈민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탁아소, 공부방을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었다. 윤기선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강남에 소재한 선교교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듯하였으며, 평신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대접받는 여교역자들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한국이라는 풍토 아래서 묵묵히 목회에 전진하는 모국 여교역자의 헌신과 충성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며 재미 여교역자들도 그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이튿날은 객전태 감독 회장과 강병욱 선교국 총무를 감리교 총회 본부로 방문해 면담하였다. 이때 재미 여교역자들의 한국 방문 목적과 지도자 개발 및 선교 정책, 그리고 모국 여교역자들의 목회와 존엄성을 위한 교단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 8차 여교역자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이때 윤남옥 목사가 회장으로 박양자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한세희 목사가 총무로 김혜란 목사가 서기로 양현주 목사는 회계로 선출되었다. 1992년 10월 26일에 임원회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아시안 여교역자 대회가 1993년 8월 2~5일 사이에 남가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Mount Calvary Retreat Center에서 있음을 알리고 많은 여교역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주제는 “21세기를 향하여”(Working Towards the 21st Century)라고 하였고, 부제로 “사역을 위한 새로운 축제, 도전과 비전”(New Celebration, Challenges and Visions for Ministry)으로 하였다. 아시안 여교역자 모임을 위하여 남가주 태평양 연회소속 여교역자들이 준

비위원이 되어 아시안 여교역자 대회는 준비하게 되었다. 한인여교역자 중에서 윤남옥 목사, 한세희 목사, 고국현 목사, 중국 여교역자 중에는 Chin Cheak Yu 목사, Mamie Ming Ko 목사, 그리고 필리핀 여교역자 중에는 Lily Malonzo Villamin 목사, Afrie Sonco Joye 목사가 준비위원이 되어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아시안 여교역자회 회장은 한인여교역자회로 뉴욕연회에 소속된 김애라 목사였다. 이 모임에는 30여 명의 여교역자들이 모였는데, 그중 3분의 2는 한인여교역자회였다. 남가주 태평양연회 감독이었던 Roy Sano 감독이 아시안 여교역자 대회에 방문하여 여교역자들을 격려하고 폐회예배에 설교와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였다. 아시안 여교역자들의 2박 3일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한인여교역자회들은 8월 5~7일까지 남가주의 Pacific Palisade 에 있는 Prebyterian Convention Center에서 제9차 한인여교역자회 총회를 열었다. 이때 이중문화 가정을 위한 목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김옥남 목사가, 이야기 말하기(Story Telling)이라는 주제로 김영 목사가, 정신대에 피해 여성을 위한 목회에 대해서는 고국현 목사가 미 연합 감리교회와 여성국에 대해서는 김혜선 목사가 강연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교역자들의 목회 장은 다양해졌다. 1992년 10월 여금현 목사는 무지개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소외되었던 이중가정 목회를 국제결혼 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나성 지역의 고국현 목사는 일제 강점기에 정신대에 동원되어 성적으로 착취 당했던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목회를 나성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작하였다. 또한 시카고지역에서는 1991년 처음으로 여교역자 지역별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이성자 목사가 선출되었다. 1993년 8월7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시카고지역의 문성자 목사가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김옥남 목사가 선출되고, 총무에는 강영숙 목사, 서기에

홍혜성 목사 그리고 회계에는 백미영 목사가 선임되었다. 이때 회칙 개정이 있었는데, 회비가 일 년에 10불에서 30불로 개정되었고 또한 회칙 수정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3.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입장 표명

제10회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대회는 시카고 Divine Word International Techny Towers Conference Center에서 1994년 8월 1~3일 "성스러운 장소와 시간 (Sacred Places, Sacred Times)"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때 강영숙 목사의 사회로 타인종 목회에 대해서는 백미영 목사가, 한인 목회에 대해서는 황인숙 목사와 함수지 목사, 기관목회에 대해서는 조하경, 김혜선, 신경림 목사, 그리고 신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윤소정 전도사와 유연희 전도사가 강연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안수받은 한인여교역자회의 수는 47명이었다. 대회 이튿날 (8월 2일) 총회에서 선교 연회를 위한 전국연합회 지역 장 회의에 참석할 대표로 회장인 이성자 목사를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후년의 연차 모임은 세계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대회 기간(1995년 8월 7~11일)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모이기로 하고 이 모임에 모국 교역자를 초청하도록 결정하였다. 총회가 폐한 후 선교연회에 대한 공청회가 오후 11:30분부터 새벽 2:30분까지 열렸는데, 김혜선 목사가 선교연회에 대한 간단한 배후를 설명한 후, 자유로운 질문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994년 회의록을 그날의 모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강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선교연회의 목적과 실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의견의 이유로 첫째는 힘 있는 남자 목사들의 독점 사태가 생긴다는

것, 두 번째는 한인들만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것, 셋째로는 한어를 모르는 2세 또는 3세들을 감안할 때 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잃는 것, 넷째로는 파송 문제에 대한 공평성의 우려, 다섯 번째는 타인종 목회자들을 비롯한 한인선교연회에 가입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불이익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감리교단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의 중요성 등이 주요 반대의견의 이유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의견 이외에 선교연회에 대한 소수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영어를 모르는 한인들, 특히 여성 평신도들이 연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연회 내에서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한인과 교회를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 셋째로는 선교연회에서 오히려 여성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3일 오전 9:30분에 세계선교부 아시안 담당자로 계시는 정춘수 목사가 선교연회를 제안하게 된 역사와 동기,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하여 30분간 설명하고 임원단의 결정에 의해 선교연회에 대한 전체적 의견을 표결에 부치기 위하여 임시 총회가 세 가지의 표결 의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그 표결 의제로는 첫째, 선교연회를 반대한다. 둘째, 선교연회 대안 책(Alternative Proposals)을 설정하고 제출함으로써 선교연회 발족 의도를 돕는다. 셋째, 대안책을 설정하고 제출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에 따라 차후 선교연회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세가지 의제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세 번째 안이 채택되었다. 대안책을 만들기 위해 특별 운영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하고 김혜선 목사, 신경림 목사, 황인숙 목사, 조하경 목사, 그리고 손연희 목사를 특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회칙 개정이 있었는데, 제13조 한인여교역자회

승계 조항은 여교역자의 선교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참고로 강영숙 목사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 후년 총회 때 상정하기로 정하였다. 이렇게 선교연회의 의제는 서서히 여교역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갔으며 과연 무엇이 한인교회와 여교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갔다.

4.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계속된 대화

세계선교부의 아시안 목회 담당 손명걸 목사와 정춘수 목사의 초청으로 한인여교역자회 소위원회와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대담이 1994년 12월 16~17일 뉴욕에서 열렸다. 이 대담에 지역별로 연락할 수 있었던 5명(황인숙 목사, 문성자 목사, 조하경 목사, 손연희 목사, 한세희 목사)과 뉴욕에 거주하는 김혜선 목사가 참여했다. 모임을 주관했던 손명걸 목사와 정춘수 목사는 여성 소위원회와 대화를 통해 한인 선교연회가 미국 내의 한인 교우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최선의 방안임에 대해 말하였고, 이에 대한 여교역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때 손명걸 목사와 정춘수 목사는 선교연회에 제한을 두지 말고 포괄적으로 미국 내의 한인 교회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자는 제안으로 자유스러운 대화와 의견 교환을 유도하였다. 대화에 참여한 여교역자들은 선교연회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한인교회 장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지를 만들어 개교회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이때 여교역자들은 이 모임을 주관했던 손명걸 목사와 정춘수 목사에게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정춘수 목사가 설문조사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은 1998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불신의 폭이 깊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인여교역자회 협의회 격동 중의 성장기 (1995~2000년)

한인 선교연회 건으로 1995년은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찬반 의견으로 극렬하게 나누어졌던 격동의 시기였다. 논쟁의 쟁점으로 등장했던 한인 선교연회 의제가 부결되었던 1996년 덴버 총회를 기점으로 한인 여교역자회의와 한인교회의 갈등과 아픔은 극에 달하였다.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어 당시의 격렬했던 의견 충돌의 깊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 기간을 여교역자의 격동 중의 성장기라 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격동의 아픔 중에서도 여교역자와 여교역자협의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1.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과 갈등

1995년 6월에 있었던 모든 연회에서는 총회 및 지역총회 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로키마운트 연회의 강영숙 목사와 북 일리노이 연회의 박영옥 목사가 감리교 총회에 총대로 한인여교역자회로는 미 연회 최초로 소속 연회에서 선출되었다. 또한 8월 7-11일에

애틀랜타에서 세계감리교 여교역자대회가 열렸는데, 주제는 "Women of Spirit - Transformed and Transforming"이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미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의 수는 약 800여 명이었고, 그중 미주 한인여교역자는 23명이었으며, 모국에서 방문 온 한인여교역자 수는 3명이었다. 이때 한인여교역자회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 하였는데 강영숙 목사와 한세희 목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문성자 목사는 워크숍을, 신경림 목사는 예배 공동인도, 백미영 목사와 박종연 목사는 선교의 재조명, 김영 목사는 패널을 인도하였다.

세계 여교역자 회의 도중 한인여교역자회 모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때 한인선교연회가 여교역자 간에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첫 모임에서 여교역자들은 선교연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 생각하였고 또한 한인교회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신앙적 설명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에 견해를 함께 하였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한인교회의 문제점 진단과 그 해결책 및 우리의 비전을 나누었다. 두 차례에 걸친 토의를 통하여 여교역자들은 선교회가 우리의 한인교회에 대한 비전에 어긋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남녀노소가 공평히 지도력을 나누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둘째, 남녀 교역자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 셋째, 차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교회, 넷째, 평신도를 양육하는 교회, 다섯째, 우리만을 강조하는 한인 교회의 벽을 헐고 타인종과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 등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모임에서는 우리가 논의한 한인교회의 문제점 진단과 그 해결책 및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임시 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한인선교연회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전미 연합감리교회에 보내고 한인 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에는 위의 문서와 우리의 심정을 알리는 편지를 함께 보내기로 하였다. 한인선교연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는데, 12가지 의견으로 종합하였다. 가장 큰 우려는 선교연회로 인한 여 교역자와 남 교역자 간의 갈등을 걱정하였다. 총회에서 선교연회에 대한 여 교역자의 공식적 입장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표수로 반대하였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미 전국 교회에 알리자는 김혜선 목사의 동의와 한세희 목사의 재청으로 이를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세계감리교 여교역자대회 마지막 날(8월 11일)에 발간된 세계감리교 여교역자 회보에 한인 선교연회를 반대하는 한인여교역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2. 갈등의 극치

8월 10일에 있었던 총회 임원선거에서 한세희 목사가 회장으로 홍혜성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총무에는 황인숙 목사, 회계에는 박종연 목사, 서기에는 고국현 목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한인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근거로 특별위원회(Task Force)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세희 목사, 조하경 목사, 강영숙 목사, 여금현 목사, 그리고 박종연 목사를 임원으로 한 한인 선교연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Interpreter와 Newscope는 한세희 회장과 전화 인터뷰 후에 선교연회를 반대하는 한인여교역자회의

공식 입장을 각 잡지에 기사화하였다. 여교역자의 선교연회에 대한 공식적 반대 입장이 가시화된 후 세계선교부 이사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한인 전국연합회 임원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여교역자회와 임원진에게 표명하였다.

총회세계선교부 손명걸 목사의 요청으로 한인여교역자회 선교연회 특별위원회와 총회 세계선교부 국내선교국(GBGM National Division) 회장이었던 Paul Dirdak,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뉴욕에서 만나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때, 특별위원회가 초안한 선교연회에 대한 여교역자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고 여교역자의 입장을 나누었다. 이 모임에서 10월 16일에 Stamford에서 있을 세계선교부 이사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초대받았다. 이러한 중에 김혜선 목사(GBGM), 함정례 목사, 김혜선 목사(N.J.), 그리고 김옥남 목사 등 4명의 여교역자는 선교연회를 지지한다는 별도의 입장(Minority Report)을 세계선교부 국내선교국 회장인 디어닥에게 보냈다.

그러나 김옥남 목사는 자신의 이름이 서명된 것은 자신의 허락 없이 된 것이며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된 것이라고 회장 한세희 목사에게 서면으로 그의 입장을 밝혔다. 세계선교부 이사회에서 조하경 목사가 선교연회를 반대하는 여교역자 입장을 대표로 대변했고 김해중 감독은 찬성하는 의견을 대변한 후 세계선교부 이사들의 찬반 투표가 있었다. 그 결과, 선교연회 의제가 부결되었다. 세계선교부 이사회에서 선교연회 의제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후 한인 여교역자회와 남교역자 사이는 첨예한 갈등과 적대감이 시작되었고 이는 여교역자회의 특별위원회의 임원진에게 인신 공격 및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여교역자회 내의 내분이 시작되었고 불신이 싹트게 되었다. 당시 전국연합회 회장(1994-1996)이었던 박이섭 목

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여교역자와 남교역자 간의 대화의 기회를 모색하였지만 서로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했다. 또한 박이섭 목사의 돌연히 한국 감리교회 선교국 총무로 가게 되므로 화해의 시도는 무산되어 버렸다. 전교연합회는 한인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선교연회 의제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회장이 부재중이었기에 당시 부회장이었던 뉴욕 거주 평신도 이현석 장로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선교연회의 사건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반대의 의견까지도 포용하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 주기보다는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방하고 적대시하므로 한인 연합 감리교 공동체를 분리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 마음 아픈 사건이었다.

3. 선교연회 의제와 1996년 총회

1996년 2월 2일~3일까지 한인여교역자회 임원회 및 특별위원회 모임이 뉴욕에서 있었다. 임원회에서는 1996년 여교역자 연차 총회 대회에 대한 준비와 덴버 총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총대로 선출된 강영숙 목사와 박영옥 목사를 비롯하여 조하경 목사, 한세희 목사, 황인숙 목사의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자금모금을 하던 중 남교역자회가 여교역자회와 만남을 요구하니 모임에 초청한다는 세계선교부 국내선교국 회장인 디어닥의 서신을 받게 되었고 이에 여교역자회는 대담에 임하기로 하였다. 모임은 총회 전달 덴버 하얏 호텔에서 있었는데, 이때 한인 여교역자 대표로 조하경 목사, 강영숙 목사, 고국현 목사, 박종연 목사 그리고 한세희 목사가 참여하였다. 한인 남교역자 대표로는 전상의 목사와 조건상 목사가 회의에 나왔으나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한

체 회의는 종결되었다. 총회 동안에 특별위원회 임원들은 총회에 참가하고 각 모임에 참여하여 한인 여교역자회의 선교연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총회 첫날 1.5세 교역자 대표자들과 여교역자 간의 선교연회에 대한 대화의 시도가 덴버 애즈베리 한인연합감리교회(조건상 목사 시무) 교육관에서 있었는데 서로의 다른 입장만을 확인하고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1.5세 교역자 대표자는 한인 선교연회 발족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 여교역자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총회 소분과위원회에서 한인 선교연회에 대한 토의가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은 찬반에 대한 양쪽의 소견 발표가 있었다. 조하경 목사는 한인 선교연회 의제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였고, 신영각 목사는 지지 발언을 하였다. 북 일리노이연회 총대였던 박영옥 목사가 한인 선교연회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있었는데, 선교연회에 대한 자기 의사를 소위원회에서 나누었다. 이날 소위원회 토의 중 선교연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탓에 선교연회 대안 책으로 "한인 목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How to Strengthen the Korean Ministry)라는 주제로 아이오와에서 참관인으로 온 평신도 이용 박사가 초안을 잡았다. 이 대안을 여교역자 한인 선교연회 특별위원회의 주선으로 남가주 태평양연회 소속 총대인 David Richardson 목사를 통해 소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에 소 분과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한인 교회를 도울 수 있는지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하되 2000년 총회까지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투표권자는 24명으로 하되, 남 교역자 4명, 여교역자 4명, 남 평신도 4명, 여 평신도 4명, 차세대 교역자 4명 그리고 감독 4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 각 기관 목사들과 감리교단 부서의 기관장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한인여교역자회는 5명

의 여교역자(한세희, 김옥남, 박영옥, 조하경, 박영미)를 Inclusive Task Force에 추천했는데, 그중에 4명(한세희, 박영옥, 김옥남, 신경림)이 여교역자 대표 자격으로 담당 감독단에 의해 선임되었다.

4. 화해와 성장을 위한 모색

1996년 8월 5~8일에 여교역자 총회가 "2000년대를 향한 우리들의 비전과 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나성에서 열렸다. 선교연회의 의제가 부결된 직후에 열린 총회에서 여교역자 간의 화합과 앞으로 여교역자와 전국연합회 간의 관계 개선 및 감리교단에서의 여교역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88년에 만들어진 선교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중심으로 조하경 목사가 주제 강연을 하였고, 여기서 연이어 여러 가지의 방안이 토의되었다.

선교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여성교역자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고 여성교역자의 지위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남성목회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하며, 특히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목회자상을 정립한다.

우리는 한국 이민 여성신학 정립을 위한 신학자 양성에 힘쓰고, 후배 여성목회자들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길을 개척한다.

우리는 행정 책임자들의 의식화를 통하여, 미 연합 감리교회 체제 내에서 한인 여성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내부적 화합을 위한 일환으로 각 지역 연회 내에서 여교역자들끼리의 모임을 발전시키

고 내부적 단합을 돈독게 하기로 하였다. 여교역자회의 장래 청사진을 장기간으로 연구 계획할 수 있는 상임 연구개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다. 여교역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과 여교역자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독려하며 여선교회 회원들이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부대"를 모을 것을 간구하였다. 전국연합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총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여 우리가 가진 독특한 재능과 지도력을 한인교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였다. 전국연합회와의 관계 개선 이전에 문제가 되는 이슈들, 즉, 성차별, 권력의 불균형, 불신, 권위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어서 이를 주장하기로 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남성 목회자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권장하였다. 교단과의 관계에서는 총대 및 연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수 목회(학원, 병원,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여교역자회는 특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와 인신공격을 당한 위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전국연합회 회원들에게 특별위원회가 한 일은 여교역자회의 입장을 대신하여 수행한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결의문을 보내자는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선교연회의 의제는 여 교역자와 남 교역자 사이에 분리와 갈등을 깊게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이었던 것과 동시에 여교역자회가 대외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7월 시카고 지역 여교역자 회장이었던 박양자 목사가 시카고 여교역자회를 대표로 조하

경 목사의 감독 출마를 위한 여교역자의 추천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고, 이에 한 세희 회장은 임원회의 인준하에 조하경 목사의 감독 출마 추천 서신을 중북부 지역 감독 선별위원회에 보내었다. 조하경 목사의 감독 출마를 선언한 최초의 한인 여교역자로서 감독 선거에서 감독이 되기에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47표를 획득하는 선전을 하였다. 또한 한인 목회정책위원회 모임이 1996년 총회 이후 1997년 2월 24~25일에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있었는데, 강영숙 목사는 세계선교부의 이사 자격으로 한세희 목사는 여교역자회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30여 명의 교역자 중 여교역자 대표는 한 명만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여 교역자 및 여성의 대표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토의 결과 여성 대표 인원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목사로는 백미영, 한세희, 황인숙, 그리고 평신도는 황진수, 유인순이 추가됨으로써 한인 목회정책위원회 모임에 한인 여교역자와 평신도의 참여가 신장되었다. 이 당시 안수받은 여교역자의 수는 55명이었다.

5. 전국연합회와 여교역자회

13차 여교역자회의는 한국에서 1997년 8월 18~20일에 모국 여교역자회의 초청으로 광림기도원에서 "Women in Ministry and Spiritual Renewal"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박 3일의 모임을 통하여 미 한인여교역자와 모국 여 교역자들은 목회의 교류와 친교를 나눈 후 판문점 및 교단 본부를 방문하였다. 총회의 임원 개선에서 황인숙 목사가 회장, 백미영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김옥연 목사가 총무, 정화영 목사는 서기, 그리고 박영미 목사가 회계로 임명되었다. 여 교역자의 목회와 사례를 나누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출판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총무인 김옥연 목사를 위원장으로 홍혜성 목사, 여금연 목사, 한세희 목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황인숙 목사가 여 교역자 회장이 된 후 한세희 목사는 총회 특별 위원회에서 빠지고 황인숙 목사가 회장의 자격으로 1998년 1월 회의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전국연합회와의 관계 개선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전국연합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1997년의 여교역자총회의 결정에 준하여 황인숙 회장은 1997년 9월 29-10월 1일까지 뉴욕에서 있었던 전국연합회 임시 총회에 박영미 회계와 함께 참여하였다. 황인숙 회장은 1998년 1월에 보낸 공문에서 "Permanent Deacon"에 대한 호칭에 대하여 격렬한 토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다음 총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1998년 5월에 나성에서 열렸던 선교대회는 선교연회를 의제로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남녀 교역자를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선교대회는 세계선교부 아시안 목회국(김종성 목사)의 재정적 지원으로 National Association on Korean American Ministries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주제는 "화합과 자아"(Unity & Identity)로 화해와 화합을 강조한 모임이었다. 대회의 준비위원장은 김해종 감독이었고 현지 준비위원장은 나성지역 목회협의회 회장이었던 이처권 목사, 총무는 백승배 목사 그리고 이원호 목사와 한세희 목사는 예배부 협동 총무로 수고하였다. 황인숙 목사가 여교역자회 회장의 자격으로 아침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는데, 이는 남녀 교역자 간의 화해의 시도였으며, 또한 이 모임은 한인 여교역자가 전국연합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최초의 모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0년 나성 로스엔젤레스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전국연합회 모임에서 여교역자회가 화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여 여금현

목사가 설교를 했다. 회장이었던 황인숙 목사가 사회, 그리고 한세희 목사가 세례 재확인식을 거행하였으며, 많은 남녀 및 차세대 목회자가 동참하여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였다.

6. 내실을 통한 안정기

1998년도 여교역자 총회가 8월 10~12일 뉴욕에서 있었다. 이때 2000년도 총회에 제출할 한인목회강화 청원서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설문지는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에 있던 조 앨리스와 특별위원회 소그룹 임원들이 만들었으며, 박영옥 목사와 황인숙 회장이 이에 참여하여 공헌하였다. 여교역자회의 연륜이 더해감으로 점차 여교역자들은 각 교회와 소속 연회에서 인정받고 안정되어 갔으며 교단 내에서는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제15차 여교역자총회는 1999년 8월 13~16일 아름다운 덴버에서 열렸는데, 회장은 회장 보고를 통하여 총회 설문 소그룹에서 수고한 박영옥 목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총회 대표로 선출된 강영숙 목사, 문성자 목사, 박희로 목사, 그리고 지역총회 대표자로 선출된 한세희 목사, 김수미 목사에 대해 축하하는 동시에 회장인 황인숙 목사도 소속 연회에서 지역총회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총회에 상정할 한인목회강화를 위한 청원서가 설문 조사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라 6가지의 중점 목표들을 설정했고 그중 하나가 한인 여교역자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가지 중점 목표는 앞으로 조직될 Council의 위원들과 유급 총무가 추진할 것이므로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교역자회는 “한인목회강화를 위한 청원서”를 여교역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지지하기로 했다. 여교

역자의 역사, 신학, 목회 이야기를 실을 책 발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유연희 목사를 위원장으로 박성희 목사, 이근애 목사, 조하경 목사, 정임현 목사로 재구성하였다. 전국 연합회에서 호칭 문제로 논쟁이 되는 Permanent Deacon에 대한 여교역자의 입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회칙 개정안을 임원단이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도록 일임하고 여교역자회 임원 개선이 있었는데, 강영숙 목사가 회장, 홍혜성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박영미 목사가 총무, 박성희 목사는 회계, 고양자 목사가 서기로 임명되었다. 이번 총회는 영성을 강조한 모임으로 Labyrinth Walk를 통한 명상을 시도하였고, 또한 자연을 통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실감했던 모임이었다. 특별히 덴버 지역에서 여교역자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교역자들이 합심했고 특별히 배우자인 남교역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제16차 여교역자총회는 로스앤젤레스의 Garden Suites Hotel에서 8월 14~16일에 있었는데, 총회 주제는 "포스트 모던 세계 속에서의 여성의 지도력"(Women's Leadership in the Post-Modern World)이었으며, 총 참석 인원은 38명이었다. 이 모임에는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여교역자 담당으로 2000년 7월 1일에 부임한 잭슨(Marion Jackson) 목사가 참석하여 한인 여교역자들을 만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선교부의 간부로 8월 취임한 강영숙 목사는 회장 보고를 통하여 "한인목회강화를 위한 총회 청원서"가 5월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또한 본인은 지난 7월 서부지역 감독 선거에서 감독 후보로 지명되어 선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별히 강영숙 목사는 5월 감리교 총회에서 세계선교부 모임에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한 "한인목회강화를 위한 총회 청원서"의 통과를 위하여 기여

하였다. 조하경 목사는 지난 5월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한인목회강화를 위한 총회 청원서”의 발표 시 4명의 발표자 중 여 교역자가 제외되었던 점에 대하여 실망을 표하였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과연 Local Pastor를 안수받은 목회자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또한 여 교역자의 대표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선교연회 의제를 통하여 많은 의견 대립과 교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여 교역자와 전국연합회 사이에는 깊은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었다. 한인목회강화위원회에 여교역자회를 대신하여 일할 3명의 대표를 우선 선임했는데 부회장 홍혜성 목사가 세계선교부 직원인 회장 강영숙 목사를 대신하기로 하였고, 조하경 목사 그리고 한세희 목사가 선임되었다. 차후 2명의 대표는 이미 선임되었던 3명의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문성자 목사와 윤남옥 목사가 선임되었다.

7. 지속적인 성장

전국적으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여교역자의 수는 소수로 뉴욕의 한영숙 목사가 1982년 8월 15일 뉴욕의 맨해탄에 고려한인감리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사역 중이고, 나성의 강현철 목사는 1992년 영화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 받아 사역 중이다. 북 일리노이 연회의 박미숙 목사는 1997년 3월 샘물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이는 중북부 지역에서 한인 여 교역자가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한 최초의 한인교회이다. 또한 시카고의 김영선 목사는 2세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한 최초의 한인 여교역자이며, 손수지 목사는 켄터키에서 켄터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

2000년을 중심으로 또한 여 교역자의 지도력은 개 교회에서는 물론 점차 세계대회 (Global Church)를 향하여 넓혀갔는데 특별히 김수미 목사가 총회 여권신장위원회의 총무로, 강영숙 목사가 세계선교부 Deputy General Secretary로, 조하경 목사가 뉴잉글랜드 연회의 연회 총무로, 신경림 목사가 웨슬리 신학교 부총장으로, 김애라 목사가 오하이오 신학교 교수로, 여금현 목사가 이중문화 가정목회 및 무속여성 목회를, 그리고 이남옥 목사가 브라이드여성훈련원의 원장으로 목회의 장이 넓혀감으로 여성 목회의 다양성을 더해갔다. 이러한 한인 여교역자의 급격한 지도력 향상 뒤에는 또한 전국 한인 여교역자회의 활발한 모임이 밑거름이 되었다.

2004년 여교역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8월 1~4일 동안 와싱턴에서 연차대회를 했는데 60여 명의 회원과 3명의 한인 감독이 참석 (김해종감독, 박정찬감독, 정희수감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대독 되었다. 기독교 대한 감리교 대표로 배월수 목사가 참석하였고,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해 주었다. 11대 여교역자회의 회장은 신경림목사, 부회장 성백은, 총무 김명임, 회계 박미숙, 그리고 서기는 Amy Yoon 목사였다.

2005년 여교역자 연차대회는 8월 15~17일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교역자 활동 113년과 여성목사 안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미 한인 여교역자들이 한국에 가서 함께 연차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에서는 여성목사 안수 50주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여교역자들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다. 앞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감 여교역자측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여교역자들의 한인 목회를 돕기 위한 Task Force가 2003년 댈러스에서 있었던 여교역자 연차대회에서 한인 여교역자들의 한인 교회 파송과 목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한인목회강화위원회와 함께 Task Force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였다.

- a. 한인 여교역자들이 한인 교회에 파송되기가 어려운 점과, 파송되어도 목회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교단에 알려 교단 차원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 b. 한인 목회를 하는 여교역자들의 목록을 확보하고, 이들과 또 한인목회를 희망하는 여교역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c. 한인 감리사들에게 알려 한인 여교역자들이 개척하거나, 담임, 혹은 부담임으로 파송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d. 크고 건강한 교회들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을 초청하여 이슈를 알리고, 한인 교회들이 여교역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다.
- e. 한인 여성교회와 협력하여 여성교회 모임에 여교역자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 이해와 관계 증진을 모색하여 여교역자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안타깝게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2015년 여교역자회와 의논 끝에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여교역자의 한인교회 파송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우리에게 남겨졌는데 왜냐하면 Task Force의 보고에 따르면 한인교회 목회를 희망하는 여교역자가 거의 없어 실제적인 파송이나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있었던 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정회원 5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한인 여교역자회의 12대 (2005~2007년) 회장인 박영옥 목사와 임원진들의 많은 수고를 하였고 전 미국에서 참여한 많은 한인여교역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력이 발휘했다. 또한 이 모임을 위하여 시카고지역 여교역자들은 물론 한인 여성교회와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

13대 회장인 박성희 목사와 임원진들은 (2007~2009년) 오랫동안의 임원이었던 여교역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책의 제목은 "The Holy Seed of Calling"으로 30명의 여교역자가 그들의 소명 이야기와 목회에 대한 여정을 이 책을 통하여 나누었다.

한인여교역자회의 커다란 전환점은 2013년에 연차대회를 전국 연합회와 함께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로 여교역자의 지도력에도 1세에서 1.5세 목회자로 전환되었는데 더욱더 새롭고 참신한 지도자의 발굴과 기용이 한인 여교역자회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별히 2005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한인 여교역자의 괄목한 성장은 교단과 각 연회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지방 감리사로 파송을 받은 역사의 장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005년에 로키 마운틴 연회의 강영숙 목사를 시작으로 많은 한인 여교역자들이 감리사로 파송 받아 각 연회를 섬기고 있다.

전, 현, 그리고 신임 한인 여성 지방 감리사

1. 강영숙 (Rev. Youngsook Charlene Kang) – Rocky Mountain Conference

2. 김옥연 (Rev. Ouk Yean Kim Jueng) –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3. 황인숙 (Rev. In-Sook Hwang) – Illinois Great Rivers Conference
4. 곽지선 (Rev. Jisun Kwak) –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5. 박영미 (Rev. Young-Mee Park) –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6. 김선영 (Rev. Sun Young Kim) – Virginia Conference
7. 한세희 (Rev. SeHee Han) – California-Pacific Conference
8. 사경희 (Rev. Kyunghee Sa) – Delaware Conference
9. 김지나 (Rev. Gina Kim) -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10. 이은주 (Rev. Eunjoo Lee) – Illinois Great Rivers Conference
11. 이문영 (Rev. Moonyoung Kathryn Lee) – California-Pacific Conference
12. 홍인숙 (Rev. Insook Hong Peebles) – Indiana Conference
13. 정화영 (Rev. Hannah Hwa-Young Chong) –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지난 1985년 한인여교역자회가 시작된 후에 한인 여교역자의 지위와 발전을 위해 수
고하신 역대 여교역자 회장과 그들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1985-1987: 오혜식 (Rev. Oh Hye Sik)
2. 1987-1989: 조하경 (Rev. Hakyung Cho)
3. 1989-1990: 류원화 (Rev. Won Wha Ryu)
4. 1990-1992: 김혜선 (Rev. Hye Sun Kim)
5. 1992-1993: 윤남옥 (Rev. Nam Ok Yoon)
6. 1993-1995: 문성자 (Rev. Sung Ja Moon)
7. 1995-1997: 한세희 (Rev. SeHee Han)
8. 1997-1999: 황인숙 (Rev. In Sook Hwang)
9. 1999-2001: 강영숙 (Rev. Young Sook Kang)
10. 2001-2003: 김애라 (Rev. Ae Ra Kim)
11. 2003-2005: 신경림 (Rev. Kyung Lim Shin)
12. 2005-2007: 박영옥 (Rev. Young Ok Park)
13. 2007-2009: 박성희 (Rev. Sung Hee Park)
14. 2009-2011: 김명임 (Rev. Myung Im Kim)
15. 2011-2013: 김옥연 (Rev. Ouk Yean Kim Jueng)

16. 2013-2015: 박영미 (Rev. Constance Pak)
17. 2015-2017: 안선욱 (Rev. Sunny Ahn)
18. 2017-2019: 강혜경 (Rev. Hyekyung Pauline Kang)
19. 2019-2021: 김소영 (Rev. SoYoung Kim)
20. 2021-2023: 이선영 (Rev. Sunyoung Lee)

이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38년의 한인 여교역자 역사를 뒤돌아볼 때 여교역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다. 여교역자 협의회와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신 모든 교역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여교역자들은 미 한인 감리교와 한인 사회 그리고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